

효빈대역

최근 수정 시각: 2025-09-24 14:33:02

분류: 서구(효빈)의 철도역 | 1995년 개업한 철도역 | 효빈 도시철도 2호선 | 나무위키 철도 프로젝트

- 개요
- 역 정보
- 역 주변 정보
 - 출구 정보
 - 일평균 이용객
 - 승강장
 - 연계 교통
 - 기타

1. 개요

효빈 도시철도 2호선 235번, 효빈광역시
서구 당선동 231-2 지하 소재.

2. 역 정보

역명대로 효빈대학교 내부에 있는 역으로,
인근에 7호선 효빈대학교 입구역과 간접환승이 가능하다.

3. 역 주변 정보

3.1. 출구 정보

효빈대역	
외선순환 당선	내선순환 칠천
← 0.84 km	0.75 km →
2 호선 (235)	7 호선으로 갈아타기
역명 표기	
2 호선	효빈대 Hyobin University 孝彬大學敎/孝彬大学/ 孝彬大学
주소	
효빈광역시 서구 당선동 231-2 지하	
관리역	
당선관리역	
운영 기관	
2 호선	효빈교통공사
개업일	
2 호선	1995년 2월 3일
역사 구조	
지하 2 층	
승강장 구조	
복선 상대식 승강장 (2,5 호선 모두)	

효빈대역 출구 정보

1	7 호선 효賓대입구역
2	효賓대 대학본부
3	효賓대 학생회관,상과대
4	효賓대 박물관
5	효賓대 예술대학
6	효賓대 학생복지타운
7	효賓대 기숙사 아파트,보건진료소
8	효賓대 대운동장

4. 일평균 이용객

연도	2	비고
2020년	19,616 명	
2021년	20,826 명	
2022년	35,178 명	
2023년	37,020 명	
2024년	36,932 명	

효빈에서 비환승역으로는 2위에 해당하는 역으로, 효빈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타는 역으로, 대학내부에 역이 있는 격인데다 효빈대 내부 모노레일로도 가기 편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역중하나이고, 당선역까지 그냥 타고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학교내 접근성이 좋은 편에 속한다. 게다가 효빈대 자체가 엄청나게 넓어서 지하철 정거장이 주변에 3개가 있는데다 모두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가깝게 조성되어 있어 만족도도 높다. 자연대, 사범대에서는 지하철 역들이 조금 먼편이라지만, 타학교대비 우수한 교통인프라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은편이다.

- 소조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를 피할 수 없었다. 주요 수요층인 통학생 수요가 원격수업으로 인해 상당 부분 이탈한 것이 매우 크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전면 대면수업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2022년부터는 수요를 상당히 회복했다

5. 승강장



6. 연계 교통

구분	정류소명	노선 번호
순방향	효빈대	6, 18, 27, 8, 10, 129, 172, 191, 219, 261, 2222
역방향	효빈대(건너편)	06-1, 81, 72, 08-1, 10-1, 129, 712, 911, 129, 621, 2222R

•

7. 기타

"공대생과 철도 덕후들의 하드코어 성지."

- [효린대학교] 캠퍼스 정중앙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역이다. (심도 40m)
 - 부지가 워낙 넓어 5호선 쪽(사회대)과는 거리가 멀고, 주로 공과대학이나 교통대학 학생들이 이용한다.
 - 1교시 시간대에는 공대생들이 좀비처럼 쏟아져 나오는 **[헬게이트]**가 열린다.
- 교내 교통대학 건물 지하와 연결되어 있어 [철도캐릭터 성지 박물관] 접근성이 가장 좋다.
 - 이곳의 킬러 콘텐츠는 단연 **[박라미]**와 **[임세하]**의 'F 학점 성적표' 원본.
 - 신입생들이 입학하면 선배들이 이곳에 데려와 **"수업 째고 신차(新車) 보러 가면 이렇게 된다"**며 참교육을 시킨다.
- [효린교통공사] 내 **'효린대 카르텔'**의 본산이다.
 - 공식 캐릭터 9명 중 무려 4명([고나미], [하루빈], [미소하], [임세하])이 이 학교 출신이다.
 - 특히 기계공학과인 **[임세하]**가 이 역에서 공구 가방을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설정)이 자주 언급된다.
- **[엠마 빵 사건]**의 비극이 시작된 곳이다.
 - 교내 매점에서 팔던 '엠마의 트램 탑승 팔빵'을 훼손한 재학생 A씨가, [민부선] 총장의 역린을 건드려 [출교(영구 제명)] 당한 전설적인 사건의 무대.
- 현실에 강림한 '니지가사키(Nijigasaki)'의 거대 학원도시: 역이 효린대학교 캠퍼스 부지 내 깊숙이 위치해 있어, 학교가 곧 하나의 거대한 도시와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 기적의 스케일: 캠퍼스 내부에 지하철역(2호선)이 있고, 그 위로 교내 순환 모노레일과 노면전차(7호선 트램)가 다니는 미래지향적인 풍경은 **[러브라이브! 니지가사키 학원 스쿨 아이돌 동호회]**의 배경인 '니지가사키 학원(도쿄 빅사이트 주변)'과 소름 둇게 닮아 있다.
- 성지순례 놀이: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서브컬처 팬들은 효린대를 "한국의 니지가사키"라 부르며, 캠퍼스 곳곳을 누비며 애니메이션 속 장면을 재현하거나 코스프레 촬영을 즐긴다. 축제 기간인 '효린 대동제' 때 역 광장은 거대한 서브컬처 행사장이자 코스어들의 런웨이처럼 변모한다.

- 전설의 '부동산학과 C 교수' 참교육 사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효린대역 앞 **중앙환승센터(광장)**에서 발생하여 에브리타임(에타)을 뜨겁게 달궜던 전설적인 사건이다.
- 사건의 발단: 당시 윤재훈 시장 후보(윤대환 전 시장의 아들)를 광적으로 지지하던 부동산학과 학생 A 씨가 광장에서 "빈효선 타는 놈들은 다 거지다", "윤대환 전 시장님의 '순수한 도시(도로 중심)' 공약만이 집값을 올린다"는 식의 망언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 교수님의 사자후: 이때 퇴근하던 같은 과 C 교수가 이를 목격하고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달려와 **"내가 두청운수(윤대환 일가의 버스 회사) 때문에 학회 날려먹은 사람이야, 이 XX 야!!"**라며 극대노했다. 이어 **"너 같은 놈은 우리 과의 수치다! 당장 꺼져!"**라고 사자후를 토해내며 A 씨를 쫓아냈다.
- 정의구현의 성지: 이 장면은 수많은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에타 실시간 베스트에 올랐고, 타과생들까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후 효린대역 광장은 '정의구현의 성지'이자 '참교육의 광장'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시험 기간이 되면 광장 벤치에는 "C 교수님의 기운을 받아 A 학점 받게 해주세요"라는 포스트잇이 부적처럼 붙곤 한다.
- '박효빈 선배'를 수호하는 요새: 효린대학교 동문인 박효빈 시장에 대한 재학생들의 충성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이다.
- 눈물의 토론회: 2022년 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윤재훈 후보가 박효빈 후보의 아픈 가정사(가정 붕괴, 학교폭력 피해)를 공격하며 조롱하자, 박효빈이 생방송 도중 격분하여 눈물을 흘린 방송사고가 터졌다.
- 분노의 집결: 방송 직후 효린대역 대합실과 광장에 설치된 대형 TV 앞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어 "선배님 건드리면 가만 안둔다", "윤씨 부자(父子)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당시 에타에는 '박효빈 수호'를 외치는 글이 도배되었고, 총학생회 차원의 규탄 성명이 논의되기도 했다.
- D 학점 고담: 이러한 학풍 때문인지, 교양 수업 발표에서 눈치 없이 '윤대환 전 시장의 교통 정책(전차 폐지론)'이나 '윤재훈 후보의

'고립주의'를 옹호했다가 교수님과 학생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D 학점을 맞았다는 괴담이 전설처럼 내려온다.

- **트랩(7 호선)과 강의실의 낭만:** 역 바로 앞에서 7 호선 트랩으로 환승할 수 있다. 지상으로 다니는 트램 특유의 "띠링띠링~" 하는 종소리가 강의실 창밖으로 들려오는데, 이게 꽤나 운치 있어서 교수님들도 강의 도중 트램 소리가 들리면 "허허, 효빈의 평화로운 소리군요"라며 흐뭇해하신다는 훈훈한 일화가 있다.